



정부,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 발령

1989년 4월 14일

경남 42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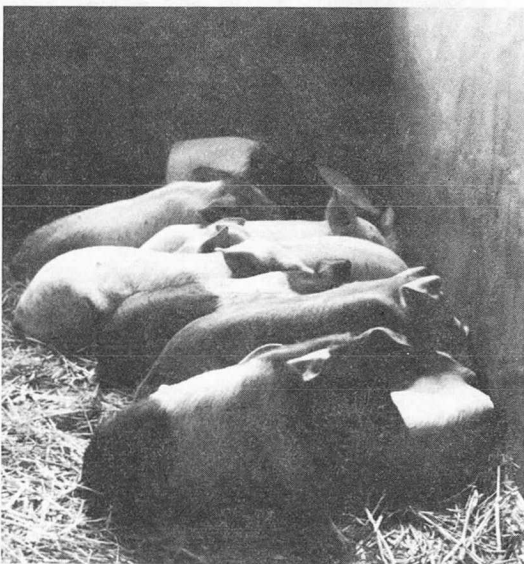
M.S. 85.11

◇ …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14일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.

최근 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, 지난 2월과 3월에는 전북, 경남, 강원, 충북, 충남 등지에서 21건 2,865두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돼 이중 다수가 폐사한 바 있다. 이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55%나 증가한 수치이다.

양돈농가들은 백신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돼지콜레라를 예방해야 하겠다<편집자주>…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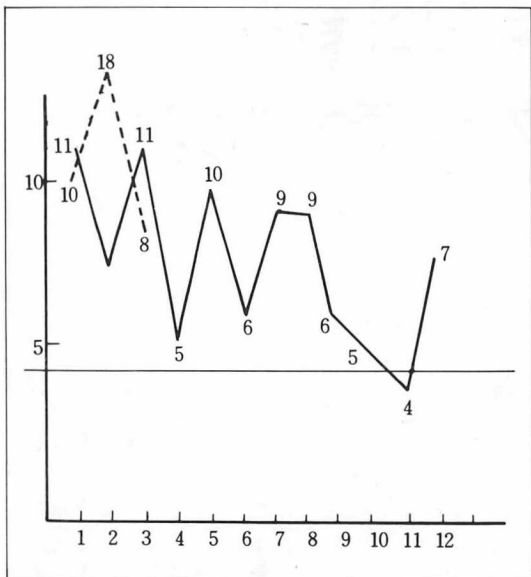
—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 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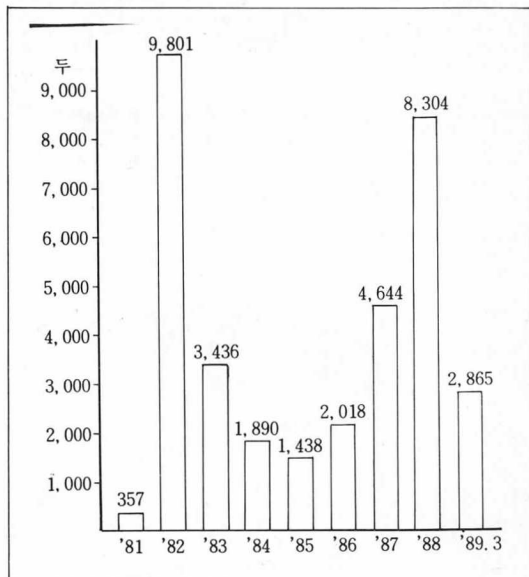
최근 환절기를 맞아 돼지콜레라가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경남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더러 서울, 경기 일원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돼지콜레라 항체가 조사결과 55%가 예방약 접종이 매우 소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,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되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니 양돈농가에서는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
1. 주요증상

-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7~21일, 사이에 거의 죽는다.



〈그림1〉 돼지콜레라 발생 동향



〈그림2〉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 추이

- 체온이 40~41°C로 오르고 며칠이 지나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~30일이 지나 죽는 만성적의 경우도 있다.
- 처음에 열이 나며 사료를 먹지 않고 굶이 섞인 굳은똥을 누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.
-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한다.
- 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비틀거리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어 죽게 된다.

2. 예방조치

-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는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, 믿을 수 있는 양돈농가에서 구입하여 2~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주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.
- 돼지우리와 그 주변은 가성소다 등 강력한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출

입을 제한한다.

3. 예방주사

-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을 때(긴급할 때)
 - 불만후 첫 젖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주사
-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이 없을 때
 - 생후 30~40일령에 1차
 - 두번주사
 - 생후 50~60일령에 2차
- 번식용 어미돼지
 - 점붙이기 2~4주전에 1회주사
- 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.

4. 농림수산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를 돼지콜레라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돼지기르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마치도록 한다.